■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결과 보도자료 (2020.1.28.)

125팀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희망하는 콘텐츠 출품해‥대상 '모두가 빛나는 하늘', 최우수상 '노노차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5,153명의 기부를 통해 총 1,159,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소중한 모금액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시민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분야는 영상, 웹툰, 슬로건, 에세이 등 캠페인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였습니다. 공모결과 125팀(개인, 단체)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체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TF'가 대중적 매력성과 활용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1차 심사를 진행, 최고점을 받은 16팀을 선정하였고 대표단의 엄정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10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거쳐 공모전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김준성님의 웹툰 '모두가 빛나는 하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해야 해-'**입니다.
(아래 웹툰을 클릭하시면 원본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2위 최우수상은 박성국, 윤현선님의 로고송 '노노차별'입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위 우수상은 초등학교 4학년 3반, 21명의 학생들이 단체 출품한 포스터입니다.

장려상은 총 10명으로 수상자와 작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고송	고원기	우리의꿈
△로고송	김현경	차별없는세상
△로고송	장지철	색안경
△영상	최병민	오늘과는 다른 내일
△에세이	장용준	나를 잃고 길을 물었다
△에세이	정낙민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에세이	정희아	열린 세상을 위한 발걸음
△웹툰	박희수	석유의저주
△포스터	고다인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
△포스터	김영구	출신이 다르면 출발도 틀리다

비록 시상권 내에는 들지 못했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위의 수상작들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여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에 귀중히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